마음 광명 찾을 '한마음의 문' 우뚝 서다

한마음 광명선원 일주문 준공법회
10월 25일 봉행…2500 대중 참석
2019년 기공식 6년 간 불사 진행
대행 스님 가르침 일주문 곳곳 투영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법어 각자돼
"이 자리가 한마음 돌아가는 자리"

음성=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창건한 한마음선원의 첫 국내지원인 음성 광명선원에 마음의 광명을 찾을 '한마음의 문'이 우뚝 섰다.

한마음 광명선원(주지 청백 스님)은 10월 25일 경내 대웅전 일원에서 '일주문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해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 LA지원장 혜중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광주지원장 혜월 스님 등 국내외 지원장 스님들과 한명우 현대불교신문사 대표이사, 박종수 안양본원 명예신도회장, 신현준 안양본원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500여 명이 참석했다.

예불과 준공 화합재에 이어 준공법회에서는 1993년 10월 17일 광명선원에서 이뤄진 대행 스님의 법문이 영상으로 소개됐다.

대행 스님은 법문에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다 그렇듯이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는 그 과정이 쉴 사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 말과 말, 뜻과 뜻으로 이어져서 쉴 사이 없이 끊임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했다

이어 "자유로운 자기 마음들을 갖고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 차를 타는 데도 매달리고 내리는 데도 매달리기 때문이다. 묵묵히 타고 내리면 되는데 참섭(參涉)하며 온통 걸리고 돌아가니 마음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겠는가"라며 "내 육체를 여래의 집으로 삼으면 그 한마음의 심봉은 자유롭다"고 강조했다.

門에 대행 스님 법문 담다

영상 법문 시청을 마친 스님들과 재가자 대표들은 일주문으로 이동해 현판 제막식과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다.

2019년 12월 4일 기공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주문 건립불사는 6년여 간 이어진 대작불사였으며, 이원상 대목장·전장일 화백·김종민 칠장·이창환 각자장 등 장인들이 참여해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한마음 광명선원의 일주문은 다포양식에 맞배지붕을 얹는 전통 목조 건축물이다. 공간의 흐름에 따라 세워진 네 개의 기둥은 배흘림 주초석 위 배흘림 원주를 세우고 그 위로 아치형 창방을 둘러 구조적 안정감과 유려한 선의 아름다움을 함께 담았다.



한마음 광명선원은 10월 25일 경내 대웅전 일원에서 '일주문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판 제막식.


대행 선사 영상 법문을 경청하는 대중들.

단청은 가칠기법으로 여백을 살리고 전통문양을 재해석해 '오고 감도 이어짐도 없이 한마음으로 순환하는 진리'를 표현하고자 했다. 특히 천장의 우물반자에는 도라지꽃과 더덕꽃, 그 열매와 발자국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꽃 본 듯이 볼 수 있는 이"라는 대행 스님의 법문을 형상화한 것이다.

기와지붕의 막새와 망와에 새겨진 그림은 대행 스님 생전에 점검받은 문양으로 막새에는 선원의 로고가, 망와에는 바깥으로 향하는 세 마리의 용이 새겨져 있다. 망와에 새겨진 문양에 대해 대행 스님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전하기도 했다. 실제 도량 안쪽 창방에는 대행 스님의 법어 '한마음으로 돌아가네'가 각자돼 있어 일주문에 담긴 정신을 여실하게 담아냈다. 일주문 앞 정원은 '머무름 없이 한 발 내딛는다'는 뜻을 담아 발자국 형태로 조성돼 수행의 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의미를 구현해냈다.

"한마음의 문 통해 자유의 길로"

이사장 혜수 스님은 치사를 통해 "일주문 안쪽 창방에 '한마음으로 돌아가네'라는 대행 선사의 법어가 새겨져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인 이 환희로운 자리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자리"라며 "대행 선사가 심어준 에너지, 일주문 불사를 하며 모든 이가 공부하며 쏟은 한마음 에너지를 느끼며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진리를 만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은 격려사에서 "일주문은 마음의 문"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법회에 참석한 인연공덕으로 어디에 있던 늘 열려있는 한마음의 문을 잘 드나들며 자유의 길을 걸어가자"고 당부했다.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법회를 준비하며 한마음이란 크고 넓고 한량없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 한마음으로 이 도량이 세세생생 한마음 도리를 공부할 수 있는 도량으로 이어가겠다"고 대중들에게 다짐했다.

한편, 이날 준공법회에서 혜수 스님과 혜솔 스님은 이원상 대목장·전장일 화백·김동철 명장·김종민 각자장·장명학 미래건축 대표·장병육 대영측량 대표·조남진 도영토건 대표·권영향 신우전기 대표·이정훈 현장 소장에게 님의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법어 서각을 전달하고 감사함을 전했다.

사천 다솔사, 효당 스님 부도탑 경내 이운

10월 25일 이운식…50년 만에 경내로

사천 다솔사(주지 무관 스님)가 효당 최범술 스님의 부도탑을 50년 만에 경내지로 이운했다.

다솔사는 10월 28일 안심료와 부도탑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도탑 이운 알렸다. 효당 스님은 다솔사에서 출가하고 주지를 역임했으나 정화운동 시기 '대처승' 논란으로 부도탑은 사찰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세워졌다.

앞서 다솔사는 10월 25일 스님의 유족과 반야로차도문화원 문도회가 참석한 가운데 부도탑 이운식을 진행했다.

주지 무관 스님은 "효당 스님은 불교계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으로, 이번 부도탑 이운은 불교의 아픈 역사를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하는 뜻깊은 일"이라며 "스님의 법맥이 다솔사와 더불어 후대에 올바르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야로차도문화원 문도들은 "반세기 만에 스님의 부도가 다솔사 도량으로 돌아온 것은 스님의 뜻이 다시 숨 쉬는 일"이라며 감격의 마음을 전했다.

효당 최범술 스님(曉堂 崔凡述, 1890~1973)은 1916년 사천 다솔사에서 출가해 해인사 주지, 제헌국회의원, 해인대학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3·1운동 당시에는 독립선언서를 등사·배포하다 투옥되는 등 민족운동에 헌신했다. 정화운동 시기 대처승 논란 속에서도 불교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 다솔사에 차나무를 심어 차를 직접 만들고 〈한국의 차도(茶道)〉를 저술하는 등 한국 차문화를 대중화시키는 데도 앞장섰다.

불교와 차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수행·교화·사회참여를 아우른 공로를 인정받아 1969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천 다솔사는 10월 25일 효당 최범술 스님의 부도탑 이운식을 봉행했다.

밀양 표충사, 제564회 사명대사 추계향사

10월 25일, 경내 사당서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는 10월 25일 사당에서 '제564회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향사는 불교와 유교가 함께 올리는 제향으로, 서산·사명·기허 대사의 구국정신을 기리고자 마련됐다.

진각 스님은 "사명 대사는 스님들의 정신적 뿌리이며, 그 뜻은 호국불교의 근본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10월 27일, 진안 문화의집서

진안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 스님, 마이산 탑사 회주)는 10월 27일 진안 문화의집에서 제12회 봉사나눔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28명의 지역 청소년들에게 총 1000만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안 내소사,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10월 26일, 경내 특설무대서

부안 내소사(주지 재안 스님)는 10월 26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2025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음악회는 지휘자 강한준 예술감독의 창작 국악관현악 '천년고찰 내소사', 아카펠라 국악관현악 '채석강 가는 길' 등을 선보였고 참가자들이 함께 '고향의 봄'을 부르며 마무리 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충북교구, 백운 화상 다례재

10월 25일, 흥덕사지 일원서

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장 도성 스님)가 10월 25일 청주 흥덕사지 금당 일원에서 제12회 백운 화상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치사를 통해 "스님의 구도 정신이 오늘날 불교의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처인승첩 이끈 '僧將 김윤후' 기리다

용인불교문화보존회, 10월 25일 처인성서 추모다례

대몽항쟁 당시 용인 처인성에서 적장 살리타이를 활로 쏴 쓰러뜨려 전투를 승리로 이끈 처인승첩(處仁勝捷)의 주인공 '승장(僧將) 김윤후 스님'의 호국 정신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용인불교전통문화보존회와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 10월 25일 용인 처인성에서 '제24회 김윤후 승장 추모다례재와 김윤후 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전통과 현대, 사람과 문화를 잇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와 용인불교사암연합회장 정호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 30여 명과 류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상식 국회의원, 남홍숙 용인시의원, 최영철 용인문화원장 등이 함께 했다.

자광 대종사는 추모 법문을 통해 "처인성과 김윤후 스님은 용인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라며 "백년을 이어갈 정신적 자산인데, 우리가 그간 너무 소홀했다. 이제는 용인시와 경기도, 나아가 국가가 나서서 선양사업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후 스님은 고려 시대 부곡 백성과 함께 몽골군의 침입에 맞서 싸워 처인성을 지켜낸 호국승장이다. 스님의 신분으로 백성들을 직접 지휘하며, 몽골 장수 살리타이를 화살로 쏘아 쓰러뜨렸다. 이 승전은 세계사에서도 '몽골군이 처음으로 패한 전투'로 기록돼 있다.

정호 스님은 "불교의 호국정신을 오늘의 시민정신으로 잇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광주 만경사, 정광중에 핫도그 자비나눔

10월 24일 학내 급식실서 600명에 전달

광주 만경사(주지 시공 스님)는 10월 24일 광주 자비신행회(상임이사 김삼옥)와 함께 불교종립 정광중학교(교장 정경금) 급식실에서 '시공 스님의 오늘은 핫도그 DAY' 자비나눔 행사를 열었다.〈사진〉

이날 행사는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하기 위한 자리로, 시공 스님이 2년 전부터 이어오고 있는 학교 방문 자비실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시공 스님은 지역 초·중학교를 직접 찾아 핫도그, 팥빙수 등을 나누며 아이들에게 행복과 응원을 전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광주 유일의 불교종립학원인 정광학원 부설 정광중학교에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시공 스님을 비롯해 정경금 교장, 이동배 정광학원 교법사, 김영섭 자비신행회 사무처장, 만경사 신도 및 자원봉사자 등 20여 명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총 600개의 핫도그를 전달했다.



시공 스님은 "초등학교 때는 300개 정도를 준비했는데, 중학생 대상이라 두 배인 600개를 만들다 보니 준비가 쉽진 않았다"면서 "하지만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수고가 다 사라진다. 함께 마음을 보태주신 신도들과 자비신행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박남주 신도는 "2년째 스님과 함께 봉사에 참여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